

2018년 하반기 세종도서 교양부문 1차 심사 총평

- 일시 : 2018년 10월 25일(목) ~ 2018년 11월 8일(목) * 현장 심사 기준
- 장소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상암동 회의실
- 심사위원 : 총 71명
- 심사회의 진행 및 결과
 - 세종도서 선정·보급사업 **교양부문** 사업 안내
 - 사업목적, 선정대상, 선정분야, 선정종수, 지원내용 등
 - 세종도서 선정·보급사업 **교양부문** 사업 신청 내역 보고

총류	철학 심리학· 윤리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지리· 관광	계(종)
104	358	144	884	223	222	195	50	1,669	314	4,163

- 세종도서 선정·보급사업 **교양부문** 심사방법, 심사기준 등 심사위원회 운영계획 보고
- 세종도서 선정·보급사업 **교양부문** 1차 심사 및 선정(465종)

총류	철학 심리학· 윤리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지리· 관광	계(종)
14	48	18	118	31	30	26	6	132	42	465

붙임 : 세종도서 선정·보급사업 **교양부문** 1차 심사 총평. 끝.

2018년 하반기 세종도서 교양부문 1차 심사총평

○ 분 야 : 총류

○ 금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총류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반영하여 코딩, 게임, 4차 산업혁명, 유튜브, 북아트 등 다양한 주제의 도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 중 통합학문과 국민 정서 함양에 유익한 도서를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즐겁고 행복한 독서활동이 가능한 도서를 선정하여 국민의 독서습관을 향상하는데 초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 금번 세종도서 교양부문에 신청한 도서는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총류의 주제에 부합하고 일반 성인과 청소년에게 두루 유익한 교양서를 선정도서로 추천하였다.

○ 분 야 : 철학·심리학·윤리학

○ 철학교양도서에 어울리는 다양한 저서들이 제시되어 선정하는 작업이 쉽지 않았다. 교양 도서이기에 쉬워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철학적 사유를 자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번역서는 상대적으로 이런 조건을 잘 갖추고 있었지만, 국내 저자들의 저작들에서 선택이 쉽지 않았다.

○ 상정된 도서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 바, 선정된 도서와 비선정 도서간의 편차가 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독자 스스로 철학하기를 통해 주체성과 창의성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도서, 고전을 단순히 소개하는 단계가 아닌 고전을 통해 삶에 대한 물음과 현대적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도서 등 양질의 도서가 다수 있었으며, 이러한 유형의 도서를 선정하였다.

○ 올해의 저서들은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한 책들이 많았다. 심리학적 개념들을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서 일상생활의 현상들에 적용시킨 책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번역서에 비해 국내 서적들의 내용이 다소 깊이가 부족하고 단편적인 경향이 있어 앞으로 이 부분이 개선되길 기대해본다.

○ 심리학적,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심리학적 지식을 함양하고 나아가서 독자의 심리적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도서를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단편적이고 흥미 위주의 조언을 나열한 도서는 배제하고자 하였다. 일반 독자들의 심리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활용을 도모할 수 있고 현재 및 미래의 사회 이슈 해결을 위해 요구되는 주제의 도서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 자기계발서와 저자의 전문성이 의심되는 도서가 많아 수준 높은 교양서가 적다는 점이 아쉽다. 소분과도 윤리학과 기타를 분리하여 구성하면 더 좋을 듯하다.

○ 창업이나 자기계발서 등의 실용적인 도서가 많은 편인데, 인문학적으로 깊이 사고할 수 있는 교양도서를 지원하고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분 야 : 종교

○ 일반인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종교 관련 도서를 선정하기 위해 고심하였다. 적지 않은 국내 작가의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도서가 있긴 했지만 번역서에 비해 창작서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 현대 사회의 우리들에게 삶의 지혜와 교양을 함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도서들을 선정하였다. 특정 종파를 넘어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들을 위주로 선정하였기에 해당 분야 교양 지식 습득에 기여하리라 기대한다.

○ 본 심사에서는 종교 분야의 저술과 번역서 중에서 대중적 교양 함양이라는 사업의 근본 취지에 걸맞은 책들을 선정하려 노력했다. 창작서를 포함해 번역서 등 적지 않은 양서를 선정하게 되어 기쁜 마음이다.

○ 분 야 : 사회과학

○ 세종도서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본 심사의견을 제시합니다. 국민의 교양적 지식 및 독서 습관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고, 정서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서를 선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4차산업혁명 통합학문/지식정보화시대에 독창적이고 예술성 있는 내용으로 융합적인 유연함에 근접한지 그 여부에 초점을 두고 심사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4차 산업혁명과 같은 변화의 소용돌이 하에서 기업이나 직장인 관점의 대응전략을 다룬 도서와 개인의 행복추구와 관련된 자기계발서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임. 전체적으로 개인의 경험과 통찰이 독창적으로 정리된 도서가 발견되어 바람직하다고 보이나, 내용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편집이나 패키징 등의 관점에서 아쉬움이 느껴짐

○ 교양부문에 제출된 뛰어난 도서들 중에서 우수한 도서를 선정하는 작업이 쉽지는 않았으나, 도서의 보급 확대를 통한 독서문화의 향상이라는 사업목적을 염두에 두고 기술적이거나 전문적인 도서보다는 많은 독자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일반적인 교양도서를 선정코자 노력하였다.

○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4차산업 혁명 및 빅데이터 관련 도서 뿐 아니라 경영전략, 창업, 자기 계발 관리 등 제반 분야에 걸쳐 도서를 선정하였다. 내용의 충실성 및 독창성과 더불어

어 경영분야의 교양서 취지에 충실해서 파급효과가 크고 가급적 많은 독자를 확보할 수 있는 도서 위주로 공정하게 평가 및 선정하였다.

○ 금번 심사대상 도서들은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4차산업, 암호화폐, 부동산, 재테크 등의 책들이 많았습니다. 본 심사에서는 이와 같은 유행성 주제들에 대한 도서는 가급적 배제하면서, 국민교양의 제고라는 측면을 심사의 중점기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편향되지 않은 견해와 이론적 근거를 갖춘 도서들을 선별한 후, 가독성과 독자친화성을 위주로 선정하였습니다.

○ 이번 심사를 통하여 일반인들을 위한 훌륭한 경제교양서들이 많이 출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경제나 금융이론부터 시사적인 중국경제, 공유경제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저작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번역서들도 있었지만 국내 저자들의 전문성 또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이나 ‘독서토론’, ‘인성교육’, ‘부모교육’ 등을 주제로 한 도서들이 많이 출간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서의 디자인이나 구성 등이 과거에 비해 세련되고 독자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수준으로 발전한 느낌을 받았다. 때문에 좋은 도서를 선택하기 위한 독자들의 노력과 고민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음을 고려할 때, 세종도서 선정을 통해 대중이 보다 양질의 도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향후 독서 문화를 활성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심사 대상 도서들 중, 교육과 관련된 교양을 넓힐 수 있고, 현 시점에서 우리사회에 필요한 지식을 담고 있다고 판단되는 도서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학생, 교사, 부모, 일반인 등 다양한 배경의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들을 고루 선정하고자 하였으며, 가독성과 내용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책의 구성과 편집 방식 등도 고려하였다.

○ 이번 심사대상에 오른 책들은 만화, 해외여행기, 사투리를 그대로 옮겨 담은 인터뷰를 토대로 한 책, 헌법, 인권분야 등 다양한 분야를 다양한 방식으로 다루고 있어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책 내용의 깊이 및 편집 등을 고려할 때 완성도면에서 아쉬운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심사대상에 오른 서적들 간의 질적 편차가 큰 편이었음. 개인적으로는 번역청 설립논의가 나오는 사회적 맥락을 고려할 때 우수한 교양번역서의 쿼터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장애인, 성소수자, 청년 등 우리사회의 소수자, 약자들을 다룬 책들이 눈에 많이 띄었고 우리사회의 문제들을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앞으로 우수한 도서들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더 늘리면 좋겠다.

○ 시대흐름을 반영하여 페미니즘, 다문화, 성소수자 등 사회의 억압과 차별에 대한 책들이 많았고 기후변화, 자동차,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변화를 예측하는 책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이 중 좀 더 독자들에게 더 쉽고 의미 있게 설득과 이해를 구하는 책들로 선정하였다. 출판된 저서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다는 점은 칭찬하고 싶다.

○ 다양한 이슈에 대한 교양서적들이 출간되었다. 신변잡기적인 가벼운 내용보다는 독자들의 사고를 자극할 수 있는 진지한 고민의 결과물들이 더 많이 출간되기를 기대한다.

○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교양서적들이 많이 출간되어 독자들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하다. 단, 개인들의 선거출마를 위한 서적들은 신청제한이 필요해 보인다.

○ 분 야 : 순수과학

○ 상정도서의 특징으로는 어린이용 도서와 생물종이나 도감류의 서적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래서 교양도서로서 어린이에 대한 고려를 상대적으로 많이 했다. 번역서의 비율이 높았으며, 질적인 면에서도 우위를 나타냈다. 화학분야와 생물학의 다양한 분야의 서적이 좀 더 많이 출판되었으면 한다.

○ 상대적으로 창작물의 질적 수준이 번역서에 비해 다소 떨어져보였다. 분야 및 주제 별로 약간의 양적, 질적 편차를 보이고 있으나, 다양한 분야에서 고르게 선정하도록 노력하였다. 창작물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창작물의 수준을 올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 국내 저자의 저서에 비해 번역서가 많았다. 국내 저자들이 다양해졌으며 새로운 관점을 가진 책들이 있었다. 아직은 번역서만큼의 깊이가 있지는 않다.

○ 국내 저자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내용도 다양해지고 있다. 새로운 사고와 관점에서 쓴 글도 눈에 띄어서 좋았다.

○ 국내 저자의 저서가 많지 않아 국내 저자에 의한 깊이 있는 저술이 많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부분야도 몇 가지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분 야 : 기술과학

○ 근거에 기반 하지 않고 업데이트 되지 않는 정보를 포함하였거나 화려한 디자인과 문장력으로 구성되어 시각적으로 화려하지만 콘텐츠가 부실한 서적을 제외하였다. 기존에 이미 많이 출판되어 요구가 적을 내용을 다룬 서적은 배제하고, 최신 트렌드와 새로운 시각, 비교적 덜 알려진 정보를 제공한 서적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 건강과 질병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일반인의 상식 형성과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도서를 선정하고자 노력하였다. 편향된 상식을 형성할 위험성을 내포한 도서는 배제하였고, 미래 지향적 시각에서 젊은 과학자 그리고 환자와 그 가족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 심사위원들과의 상식적이고 공정한 협의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교양지식 습득에 유용한 도서를 위주로 선정하였다. 다양한 분야의 저자들이 전문적인 내용임에도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도록 특색 있고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 저술된 서적들이 많았으며, 그럼에도 과학적 근거를 충분히 뒷받침하려는 노력들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해당 선정 도서를 통해 독자들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양질의 정보 획득을 기대하며, 이 사업을 바탕으로 온 국민이 지식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길 바란다.

○ 우리나라 사회에 다양한 문화적 자극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내용에 중복이 적고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소개하려는 저서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흥미 있는 내용은 많았으나 너무 주관적인 정보보다는 객관성을 담보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것들에 더 좋은 인상을 받았다. 4차 산업 시대에 관심이 높을 만한 주제의 저서들 중에서 독자들에게 편협하지 않고 올바른 정보를 주는 저서를 선정하기 위해 고심했으나, 그 중에는 너무 내용이 난해해 제외된 것들이 있는 게 아쉽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이전에 출간된 책들과 내용의 대부분이 중첩되어 이를 확인하고 제외한 책들이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확인하면 좋을 것 같다. 앞으로 창의적이고 믿음직스런 책들이 많이 선정되고 보급되기를 기대한다.

○ 본 분야 도서는 크게 IT 산업 관련 교양, 자녀 양육 관련 교양, 그리고 기타 농업, 주거, 환경, 디자인 관련 교양 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도서에서 선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으나, 심사자 간 합의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선정하였다. 우선, 저자가 지나치게 개인의 경험과 생각, 아이디어 등으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도서들은 일반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둘째, 선정방식에서는 각 분야에서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채택하고자 하였으며, 셋째, 일반인에게 삶의 지혜와 통찰을 가져다 줄 수 있으며, 그리고 우수한 내용과 형식을 갖추고 있는 도서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 세종도서 교양부문 1차 심사에 상정된 도서들이 육아, 환경, 4차 산업 기술 관련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각 해당 분야별로 전문위원들이 1차 검토를 통해 도서를 선정한 후 위원별 상호간의 의견수렴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에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도서를 중심으로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 분 야 : 예술

○ 미술 관련 서적의 출간량은 많은 편이나 질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났다. 특히 응용이

나 직접 그림을 그리는 것과 관련된 실용서들이 눈에 띄는데 이와 같은 도서들은 독서문화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적을 것으로 판단돼 제외하였다. 예술작품의 감상에 관한 책이 비교적 많았으나 대부분 유사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아쉬움이 컸다. 현재 물질자료, 일상사를 중시하는 흐름과 맞물린 서적들이 소장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출간된 점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 전체적으로 창작도서가 부족하여 번역서를 선정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아쉬웠다. 창작도서 중에는 교양서로 분류하기 어려운 서적이 많았다. 반면에 번역서들은 전반적으로 번역의 질이 크게 향상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 예술 분야의 다양한 서적들이 지원하였고, 특히 교양서인 만큼 건축, 사진, 스포츠, 영화, 희극, 번역서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그 ‘누구나’는 자칫 광범위한 대상이 되기 쉬워, 연령 별 혹은 관심 별 분류가 조금 더 세분화된다면 더욱 좋은 교양서의 선정이 되리라 여긴다.

○ 예술분야의 다양한 서적들 중에서 일반인들이 교양서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서이다. 장르 별 다양한 도서를 폭넓게 선정하여 다양한 영역의 예술서적들이 독자에게 보급되기를 희망한다.

○ 교양도서로서 일반인들의 지식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의 도서들이 많았다. 장르 별로 더욱 다양한 도서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분 야 : 언어

○ 인간의 삶에서 ‘언어, 의사소통’의 중요성은 늘 강조되고 있지만 우리 출판업계에서 생산하는 언어부문의 책은 언어지식에 집중하는 실용학습서가 대부분이다. 이에 본 심사에서는 창의적인 언어 대중서의 필요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언어 현실을 보여주는 저자의 참신한 관점과 언어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 창의적인 구성과 내용을 담고자 노력한 도서들을 선정하였다.

○ 전문성과 대중성 간의 균형을 잘 맞추어 가독성을 높이고 있고 시의성과 독창성 또한 잘 담고 있는 책을 주로 선정하였다. 독서를 통해 재미는 물론 교양적 지식을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을 선정하였다.

○ 분 야 : 문학

○ 심사기준에 있어 장르별 문학성 성과를 살피기도 하였지만 일반 독자에게 유용하고 예술적 향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폈다. 앞으로도 예술적 성과와 대중성을 동

시에 담보할 수 있는 좋은 책들이 많이 출간되길 기대한다.

○ 심사 대상 도서를 심사위원 전원이 꼼꼼하게 읽고 심사를 진행했다. 가능한 출판사와 저자, 장르 등의 중복을 피해서 선정했고 일반 시민이 독자라는 점 또한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도서가 균형 있게 채택될 수 있게 했다.

○ 창작도서, 교양도서의 대중적 확산성과 독서 문화 향상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여 모든 심사위원이 모든 도서를 심사하여 충분한 논의과정을 통해 심사를 원만히 진행하였다.

○ 시집, 시조집, 비평집, 희곡집, 번역서 등 다양한 형태의 도서들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 교양도서라는 타이틀에 맞게 문학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지닌 저서들을 선정하고자 노력했다. 아쉬운 것은 심사 대상에 비해 선정할 수 있는 저서의 숫자가 지나치게 적다는 것이었다.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해서는 문학나눔 사업과의 중복 문제도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 희곡집, 번역희곡집, 방송대본집 중에서 가능성은 보이지만 경륜이 부족한 작가의 작품은 보류시키고, 역작과 경륜 있는 작가의 번역서를 중시했다. 방송대본도 현실에 부합하고 건강한 표현과 감동성을 중시하였고, 번역서도 현대 중국 희곡 작가의 작품을 다수 번역가가 합심해 번역한 중국 희곡 총서 중에서 그 작업을 주도한 작가의 역서를 1차 심사 선정작으로 선택했다.

○ 문학은 말들을 고르고 그 말들을 결합하여 이제까지와는 전적으로 다른 어떤 긍정을 생성하려는 노력이다. 아마도 그런 노력이 인간을 다른 생물과 구별하게 해주는 힘일 것이다. 심사 대상 작품들에서 그런 노력과 힘을 느끼고 확인하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이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런 힘의 밀도를 확인하게 해주는 작품들이 기대보다는 많지 않았다는 점이다.

○ 소설, 에세이, 교양서, 만화에 이르기까지 너무 다양한 종류의 책이 섞여있어 심사하기가 다소 어려웠다. 질 좋은 번역서가 많은 점은, 역설적으로 우리 작가의 분발을 촉구하는 측면이 있는 듯하다.

○ 소설, 수필분야의 도서 심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특별한 문제나 어려움 없이 원활히 심사를 마쳤습니다. 예년에 비해 총 지원도서 중 번역서와 수필의 비중이 더 커졌다는 점을 특기할 만합니다.

○ 2018년 상반기에 출간된 소설과 수필은 우리 시대의 문제의식을 잘 드러내고 있다. 우울, 죽음, 답답하고 갑갑한 일상, 이런 것들에 대한 출로로 퇴사, 여행 등을 택한 작품이 많았다. 가급적 문제를 깊이 있게 드러내고 본격적으로 풀어낸 작품을 선정하였다.

○ 본 소분과에는 올해 상반기에 출판된 다양하고 주옥같은 작품들이 선보였다. 특히 주제나 소재로 보자면 우리사회의 면면을 오롯이 비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작가들의 붓끝을 통해 세상에 드러내져 공감 할 수 있었다. 우리 출판문화의 바로미터이자 우수한 성과들이 더 확산되고 공유되길 기대해 본다.

○ 상정된 책들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해당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섬세하게 드러낸 책이 많았다. 1차 심사에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둘 수 있는 주제거나 관심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새로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완결도가 높은 책들을 선정하였다.

○ 본 심사에서는 기획의 창의성과 현대 독자들이 관심을 둔다고 여겨지는 주제를 다룬 교양서를 선정하였다. 2차 심사를 거치며 보다 세밀한 기준을 적용하여 도서 선정이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 여행 관련 에세이나 회고적 수필집의 수가 심사 대상 서적의 다수를 차지했지만 질적인 수준은 양에 미치지 못하였다. 기획의 신선함이나 주체의 참신함이 느껴지는 몇 권만 선정하였다. 반면에 상정도서 수는 적었지만 소설·소설집의 수준이 높은 편이었다. 전체적으로 참신함이 느껴지는 책이 적어 아쉬웠다.

○ 상정도서에는 소설부터 수필집, 앨범, 자서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책들이 신청되었다. 그 중에서 「세종도서」 선정 기준에 맞게 사회전반의 교양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서적을 집중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미래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양도서 중심으로 선정하였음.

○ 그림책의 발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들의 성찬이어서 심사에 어려움이 많았다. 새로운 내용과 기법, 독자의 지평을 넓히는 다채로운 그림책들을 더 많이 선정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 주제와 표현기법이 다채로워서 반가웠다. 신진 작가들의 국내 창작이 돋보인 점도 고무적이라고 본다. 대상 독자가 유·아동뿐만 아니라 성인으로 넓어진 것 또한 매우 만족스럽다. 더 많은 그림책을 선정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 1차도서 선정은 그림책의 주 독자층이 유아, 유치,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성장기 어린아이들의 정서함양과 독서습관을 키워줄 수 있는 작품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작가와 출판사 중복을 피하고 국내외 작가의 비중을 고려하는 한편 0세부터 100세까지 전 생애 독자가 함께 즐기며 국민의 독서문화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글과 그림이 우수한 양질의 그림책을 선정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 심사 대상 그림책들에 한국 그림책의 수가 많아 기뻐다. 더불어 절대적 기준에서 훌륭한 한국 그림책들이 많아 1차 선정에서 번역 그림책보다 한국 그림책을 많이 뽑아야만 한다는

압박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서 더욱 기뻐다. 그러나 한국 그림책의 경우, 소재가 좀 제한적인 점이 아쉬웠다. 실존 인물이나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이야기들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좀 더 어린이의 삶, 마음, 상상을 깊이 다루는 그림책, 호기심을 자극하는 창의적 아이디어의 그림책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

○ 아동 청소년 분야이다 보니 다양한 계층(초등 저, 중, 고, 중등, 고등) 학생들에게 좋은 만한 책을 골고루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번역서에 비해 우수한 한국 작품들이 다수 있어 고무할 만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시기적 유행을 의식한 것 같은 상투적인 주제를 다룬 작품들이 많다는 느낌을 받았다. 또한 청소년 분야의 책들인 경우 우수한 작품을 고르는 과정에서 특정 출판사에 편중된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해 우수한 교양 문학 작품이 많이 출판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 1차 심사 도서로는 본격 아동청소년 문학뿐만 아니라 서사의 형식을 빌려 쓴 정보 지식 도서, 가치 탐구책 등이 다양하게 상정되었다. 또한 동시집도 눈에 많이 띄었다. 1차 심사에서는 아동·청소년 독자의 눈높이에 맞춘 도서, 서사성과 문학성을 갖춘 도서, 책 읽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도서, 최근 사회 문제를 다룬 도서를 기준으로 겹치지 않게 선정하였다.

○ 1차 심사에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문학과 비문학 도서가 있었다. 아동·청소년 독자 들의 문학적 소양과 교양을 높일 수 있는 도서들이 다수 있었으나, 소재나 내용이 중복되어 적절성이 다소 약한 책들은 배제하였다. 내용의 충실성과 작품의 독창성, 교양도서로서의 가치를 고려하여 아동·청소년 독자에게 긍정적이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도서들로 선정하였다.

○ 아동과 청소년의 정신적 성숙과 정서 함양에 바른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다룬 도서를 주로 선정하였다. 물질중심주의와 비인간화가 만연한 사회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독서를 통해 바른 인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였다.

○ 분 야 : 역사·지리·관광

○ 전 시기에 걸쳐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양서가 상정되었는데, 전반적으로 조선시대에 편중된 면이 없지 않고, 기존에 잘 알려진 인물이나 소재, 주제와 중복되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선정된 도서들은 내용의 충실성과 교양서로서의 체제를 갖춘 것으로서 독자들에게 교양 습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역사학과 인문학적 교양을 높일 수 있는 도서를 선정하였다. 광범위한 독자를 염두에 두되 기존에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참신하고 새로운 문제의식과 소재를 우선시하였다. 아울러 새로운 만큼 쉽고 재미있게 서술하여 읽는 이로 하여금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책을 선정하고자 했다.

○ 식량문제에서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21세기 인류가 직면하고 여러 현상과 문제들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책들을 선정하였다. 독자들로 하여금 사회나 주변의 여러 현상에 대해 인문학적으로 성찰하도록 자극하는 책들임에 틀림없다.

이와 함께 저자들의 전문성과 책의 완성도 역시 선정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었다. 일반 대중을 독자로 한다는 점에서 흥미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흥미는 주제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심사자의 생각이다.

○ 출판된 100여종의 도서 모두 서적의 편집이나 내용 등에서 상당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우리 출판문화의 발전, 우수성을 단적으로 반영한다고 판단된다. 주제 및 필자도 대단히 다양하다. 다만 일부 서적의 경우 아동용 도서도 있는가 하면 다소 전문성이 강한 저술도 있었다. 교양 도서라는 점을 감안하여 역사 분야 서적의 선정 비율을 조금이라도 상향시켜 줄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 사회현상을 반영하듯 수많은 여행관련 서적들이 발간되고 있으나 여행정보 제공이나 개인의 여행경험담을 기술하고 있는 도서가 많았다. 1차 심사에서는 이러한 단순한 여행기보다는 여행의 방향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서적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 관광분야와 역사, 지리분야의 도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사회인의 교양서적으로 중요하다. 우리나라와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 관련된 관광관련 서적과 역사·지리적 관점의 양서가 돋보였다. 주제의 참신성과 충실성, 가독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였다.

2018년 하반기 세종도서 교양부문 2차 심사 총평

- 일시 : 2018년 11월 21일(수) ~ 2018년 11월 27일(화)
- 장소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상암동 회의실
- 심사위원 : 총 29명
- 심사회의 진행 및 결과
 - 세종도서 선정·보급사업 **교양부문** 사업 안내
 - 사업목적, 선정대상, 선정분야, 선정종수, 지원내용 등
 - 세종도서 선정·보급사업 **교양부문** 1차 심사 선정 내역 보고

총류	철학 심리학· 윤리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지리· 관광	계(종)
14	48	18	118	31	30	26	6	132	42	465

- 세종도서 선정·보급사업 **교양부문** 심사방법, 심사기준 등 안내
- 세종도서 선정·보급사업 **교양부문** 2차 심사 및 선정(335종)

총류	철학 심리학· 윤리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지리· 관광	계
14	35	18	87	23	22	17	6	83	30	335

※ 총류, 종교, 언어 분야는 2차 심사 없음.

붙임 : 세종도서 선정·보급사업 **교양부문** 2차 심사 총평. 끝.

2018년 하반기 세종도서 교양부문 2차 심사총평

○ 분 야 : 철학·심리학·윤리학

○ 자기계발서를 포함한 많은 심리학 도서들이 출판되었고, 주제나 내용 측면에서 좀 더 다양해졌습니다. 심리학의 개념이나 연구 결과들을 활용한 도서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으며, 참신한 주제들을 다룬 도서들을 선정하려고 했습니다. 내년에는 국내 저서들의 내용이 좀 더 충실해지고 깊이를 더해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 적절한 전문성을 지닌 저자의 교양도서가 전체적으로 부족한 점이 아쉽다. 그리고 실제 심사과정에서 시간 부족으로 인해 번역의 퀄리티를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부분에서 보완이 되면 좋을 듯하다.

○ 철학의 대중화를 위한 작품들이 적지 않게 출판되어 고무적이다. 특히 대중을 겨냥한 철학교수들의 강의형식의 글과 강의에서 얻어진 글들은 생생함을 더한다. 다양한 주제의 글들, 고전 재해석 등도 눈에 띈다. 국내창작서는 주제의 다양성은 좋으나, 번역서에 비해 내용의 충실함이 부족한 느낌은 있다.

○ 분 야 : 사회과학

○ 심사대상 도서들이 우수하여 선정상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중복 기준에 따라 선별하여 2차 심사도서를 선정하였습니다.

○ 2차 심사에서는 분야/주제별 다양성 및 기준에 출판된 책들과의 차별성, 편집 등의 문제를 위주로 선정하였다. 사회독서, 인권, 내레이션, 교열 등 다양한 부문이 포함된 것이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 학생과 학부모, 교사, 일반인 각각에게 도움이 되는 책을 선정하고자 하였으며, 시대의 흐름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교육의 문제들을 함께 고려했음.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으로 독자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독서를 이어갈 수 있는 내용과 구성인지를 보았음.

○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살아가야 할 전문인 혹은 일반인들에게 개인 및 기업 혁신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핵심 사상을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서적들로 사료된다.

○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일반 시민이나 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교양 도서들로서 선정될 만한 좋은 책들입니다.

○ 다양한 분야의 흥미로운 소재의 책들이 심사되었다. 교양서적의 성격에 맞고, 이데올로

기적 편향성이 없는 책, 사회의 변화를 면밀하게 관찰한 책을 선정.

○ 전반적으로 짜임새 있게 저술된 저서들이 많아서 선정이 힘들었다. 폭넓은 독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도서, 시대의 변화를 미리 일깨워 줄 수 있는 책으로서 전문성이 있는 도서를 위주로 하여 객관적 시각에서 선정하도록 노력하였다.

○ 분 야 : 순수과학

○ 1차 상정도서 중 개정판이라 할 수 있는 도서를 제외하고, 자연과학적 교양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도서를 선정하였다. 일반인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위한 서적도 포함하여 내용의 충실성과 독창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 어린이를 위한 서적과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미세먼지, 플라스틱, 화성 등의 이야기와 예술과 관련한 서적을 선정하였다.

○ 분 야 : 기술과학

○ 내용의 충실성과 도서로서의 완성도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개정판 제외 및 국내 창작서 중심 선정을 고려하는 동시에 보다 많은 도서관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책을 선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음.

○ 현대 트렌드를 반영한 내용을 담은 도서를 중심으로 해당 저자의 전달력이나 도서 제작자의 작업 역시 고려하였다. 시대적 수요를 반영한 것이 큰 특징이다.

○ 분 야 : 예술

○ 사진, 건축, 스포츠, 영화, 레크레이션 등 기타 예술분야에선 건축과 영화분야가 다른 분야보다 많이 지원하였고, 번역서 중에는 아동서가 있었다. 다양한 기타 예술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서와 대중서의 경계가 모호한 내용들이 적지 않게 발견되어, 교양서에 적합한 대상을 위한 책이 아쉽다.

○ 미술 관련 서적은 한국 학계의 수준을 반영한 미술사 관련 서적이 다수를 차지하며, 현대인을 위한 미술 감상서적도 다수 보였다. 음악의 경우 한국의 저술보다는 번역서가 많은 것이 두드러진다. 이런 경향 속에서 아쉬운 점은 동양의 예술에 대한 주목이 소홀한 점이다. 앞으로 한국과 동양관련 저작이 다수 출판되기를 기대한다.

○ 분 야 : 문학

-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인성과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될 만한 저작들이 많았다. 특히 역사, 성장, 판타지 등 독창적이고 참신한 내용을 담은 작품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 문학적 성과와 더불어 대중성을 확보한 작품들이 많아 심사에 어려움이 컸음. 지원의 폭을 넓혀 지원의 의미를 확대하기를 바람.
- 다양한 장르의 우수한 작품집들이 선정되었으나, 최종 선정되는 작품집의 수가 극소수여서 많은 아쉬움이 있다. 더 많은 작품집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 다양한 소재와 기법의 책들이 그림책의 지평을 넓히는 현장을 확인했음. 지원의 폭을 더 넓히기를 바람.
- 여러 분야에서 출간된 다양한 책들이 선정되었다. 시, 소설, 수필 외에 만화책이나 그림자료가 포함된 책도 포함되어, ‘책’의 함의가 넓어졌음을 짐작케 한다.
- 중복 도서 등을 선별·제외하고 남은 책들을 주제와 내용을 참고하여 재분류하였다. 다양한 분야의 책, 교양이라는 주제에 어울리는 도서를 선정하기 위해 분과 위원 사이에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 선정 도서의 질에 대한 합의가 비교적 쉽게 이루어져 큰 무리 없이 회의가 진행되었다.
- 그림책분야 1차 심사에서 선정되었던 도서 중에서 신진작가와 중소규모 출판사를 중심으로 창작의 완성도와 그림의 개성, 그림책의 주요 독자층인 유아, 유치, 부모를 비롯한 전생애 독자층에 독서흥미와 독서문화진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도서를 선정하였다.
- 2차 심사에서는 다양한 주제를 다룬 수준 높은 도서들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도서는 독자들에게 인문학적 지평을 넓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 다양한 분야와 작가들의 작품들이 선정 되었으나, 그 중에서 아동·청소년 독자의 독서흥미와 인문학적 소양의 증진을 위해 최종 선정하였다.
- 수필 분야에서 개인의 특수한 경험을 잘 녹인 작품이 적지 않고, 소설에서는 서사성이 높은 작품이 적지 않았다. 아쉽게 탈락한 작품이 적지 않다.

○ 분 야 : 역사·지리·관광

- 2차 심사에서는 1차 심사에서 선정된 도서 가운데 일반인들의 교양을 함양할 수 있는 도서를 선정하는데 초점을 맞추었고, 다른 분야에서 선정된 주제도 고려하였다.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깊이 있게 분석한 도서와 현재 일반인들의 관심이 증폭되는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선정대상에 포함시켰다.

○ 2차 심사에서도 1차와 마찬가지로 독서대중의 교양함양에 적합한 도서를 선정하는데 주력하였다. 동서양의 역사와 다양한 주제를 다룬 도서가 심사대상에 올랐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오늘날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있는 주제를 전문성을 갖고 가독성이 있게 서술한 도서를 선택하였다. 이와 함께 21세기 인류를 역사적으로 성찰해볼 수 있게 해주는 교양도서 역시 선정 대상에 포함시켰다.

○ 2차 심사에서는 1차 심사에서 선정된 도서를 대상으로 여행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도서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여행의 폭 보다는 여행의 깊이를 제고할 수 있는 도서들과 역사적 사실을 관광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도서들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2018년 하반기 세종도서 교양부문 3차 심사 총평

- 일시 : 2018년 12월 7일(금) 15:00
- 장소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상암동 회의실
- 심사위원 : 총 13명
- 심사회의 진행 및 결과
 - 세종도서 선정·보급사업 교양부문 사업 안내
 - 사업목적, 선정대상, 선정분야, 선정종수, 지원내용 등
 - 세종도서 선정·보급사업 교양부문 2차 심사 선정 내역 보고

총류	철학 심리학 윤리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지리· 관광	계(종)
14	35	18	87	23	22	17	6	83	30	335

※ 총류, 종교, 언어 분야는 2차 심사 없음.

- 세종도서 선정·보급사업 교양부문 심사방법, 심사기준 등 안내
- 세종도서 선정·보급사업 교양부문 3차 심사 및 선정(220종)

총류	철학 심리학 윤리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언어	문학	역사 지리· 관광	계
7	24	9	57	16	15	13	3	55	21	220

붙임 : 하반기 세종도서 선정·보급사업 교양부문 3차 심사 총평. 끝.

2018년 하반기 세종도서 교양부문은 총 10개 분야 4,163종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대상 도서가 5개월 치였음에도 적지 않은 도서가 사업에 지원하였고, 경쟁률은 19:1에 이르렀습니다. 저희 71명의 심사위원은 약 3개월의 심사기간동안 소홀함이 없도록 성심껏, 사업에 지원한 책들을 공정하게 심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제한된 선정종수로 인해 더 많은 책을 선정하지 못한 아쉬움이 크지만, 출판 산

업 진흥 및 독서문화 향상이라는 세종도서 선정·보급 사업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교양부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10개 분야 220종을 하반기 세종도서 교양부문 도서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심사에는 전 분야에서 새롭고 참신한 주제를 다룬 책들이 돋보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중독 등 사회의 필요에 부합하는 주제를 다룬 책, 영상과 매체에 친근한 요즘 청소년을 위한 책 등이 사회과학, 철학·심리학·윤리학, 종류의 분야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역사·지리·관광 분야는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역사·여행·관광·지리 등을 접목한 융합적 지식을 다룬 책도 좋았습니다. 특히 예술 분야에는 북한, 평양, 한국의 근대화 등을 다룬 책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는데, 단순히 시대의 조류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예술분야의 다양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출간을 기대합니다.

사회과학 분야의 경우 책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소재의 다양성과 균형성이 돋보였는데 특히, 국내 창작서 송 다문화 이해, 장애인, 복지 능 잘 다뤄지지 않았던 소재를 다룬 점이 고무적이었고, 현재 변화하는 한국사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언어, 순수과학, 철학·심리학·윤리학 등 전문 연구결과를 쉬운 말로 풀어 대중에게 보다 쉽게 읽힐 수 있게 한 도서도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대중의 지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양질의 교양서를 뽑을 수 있었습니다.

문학의 경우, 아동·청소년 분야 심사 도서가 상대적으로 적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분야 책들이 여러 분야에 산재해 있어서이기도 하고, 아동과 청소년이라는 특정된 독자층을 위해 창작된 출판물만 심사하였기 때문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류성이 강한 책들이 많았는데, 유행을 타지 않고 청소년 교양지식 함양을 위해 다양한 주제를 고루 다룬 청소년 도서가 많이 출간될 수 있도록 출판사에서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부 분야에서는 그 분야만의 특색이 뚜렷하여 심사에 더욱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다종교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종교는 예민한 분야입니다. 접수도서에 특정 종교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으나 종교적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하였고, 전국 공공도서관 등 다양한 보급처에 선정도서가 보급되는 것을 감안하여 일반 대중의 종교적 교양 함양에 맞춰 심사하였습니다. 순수과학과 기술과학은 그 세부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입니다. 가급적 골고루 선정하여 다양성에 주안점을 두고자 했고, 근거 및 내용이 부실하거나 저자 개인(혹은 사업체)의 홍보 성격이 강한 책은 본 사업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선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순수과학의 경우, 해당 분야 비전문가의 양서가 돋보였고, 어린이를 위해 쉽게 풀어 쓴 아동서도 좋은 책이 많았습니다. 기술과학의 경우, 이전에 없던 새로운 산업과 관련된 참신한 책들을 선별하였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아쉬운 점도 적지 않았습니다. 현 시대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전

문적 지식을 찾고, 얻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정보의 접근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대중의 수준도 높습니다. 따라서 얇고 단순한 정보만을 담은 책은 일반 독자들의 관심을 받을 수 없기에, 보다 특색 있고 작가의 관점이 담긴 책들이 교양서로서 선정의 가치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특정 주제에 대한 쏠림 현상과 접수도서의 분야 선택 부적합으로 인한 어려움은 이번 심사에서도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언어 분야는 외국어학습서 및 어학교재가 대다수였습니다. 다문화, 다매체로 인한 의사소통 환경의 변화 속에서, 앞으로는 소통과 공감에 대한 문제의식, 언어를 통한 사회 현상에 대한 통찰, 그리고 새롭고도 풍부한 언어자원을 다룬 폭 넓은 언어 관련 서적이 출간되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특정 심사 분야에서는 양서임에도 지나치게 전문적이라 교양부문에 부적합하여 선정하지 못한 책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다수의 대중이 이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이러한 책들은 다소 아쉽지만 선정에 제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양서와 학술서의 구분 기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주제의 양서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본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예산 확대로 더 좋은 양질의 책이 보다 많이 선정되어 읽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항상 세종도서 선정·보급 사업에 큰 관심과 참여를 쏟아주시는 출판인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세종도서 선정·보급 사업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뜻깊고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늘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2018년 하반기 세종도서 교양부문 심사위원 일동

위와 같이 선정함.

2018년 12월 7일

심사위원장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심사위원

붙임. 2018년 하반기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위원회 최종 선정도서 목록 1부. 끝.

2018년 하반기 세종도서 교양부문 3차회의 선정(220종) 목록

연번	분야	도서명	출판사	저자	번역서	번역자
1	종류	그들도 아이였다	마음이음	김은우		
2	종류	그때도, 크리에이티브: 절대로 변하지 않는 모바일 게임 마케팅의 비밀	루비페이퍼	우주인		
3	종류	도서관에 간 외계인	주식회사킨더랜드	박미숙, 최향숙		
4	종류	된다! 김매주의 유튜브 영상 만들기: 예능 자막부터 비밀스러운 광고 수익까지!	이지스퍼블리싱(주)	김매주		
5	종류	베낭, 싸고 애교 무작정 따라가라. 초행길에 더 좋은 길기 100선: 이 야기가 있는 수도권 도보여행 가이드(서울, 경기, 인천)	도서출판 혼들의자	윤광원		
6	종류	아빠표 어린이 게임 코딩 : 게임 세계에 강한 아빠를 구해라	남가람북스	이상진		
7	종류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야 : 예술을 하는데 수력이 필요하다고?	특별한서재	노준용		
8	철학/심리학/윤리학	4차 산업혁명과 인간	연암서가	김성동		
9	철학/심리학/윤리학	BTS 예술혁명	파레시아	이지영		
10	철학/심리학/윤리학	고전 강연(1-8)	(주)민음사	김우창 외 42인		
11	철학/심리학/윤리학	낭독 독서법	주식회사 북빙크	진가록		
12	철학/심리학/윤리학	내가 물었던 상자를 마주하고, 다시 나를 성장시키는 홀로서기 수업	(주)상상아카데미	김진관		
13	철학/심리학/윤리학	논리와 오류 : 비편적 사고와 논증	㈜박영사	유순근		
14	철학/심리학/윤리학	니체의 문화혁명 : 건강한 문화, 병든 문화	철학과현실사	박찬국		
15	철학/심리학/윤리학	돈키호테의 말	(주)열린책들	안영옥		
16	철학/심리학/윤리학	마르크스 2020	편담북스	로날도 몽크	Y	김한솔기
17	철학/심리학/윤리학	영 때리기의 기적	김영사	스리니 필레이	Y	안기순
18	철학/심리학/윤리학	보수의 정신 : 버크에서 열리엇까지	지식노마드	러셀 커크	Y	이재학
19	철학/심리학/윤리학	소설이 묻고 철학이 답하다	갈매나무	박연숙		
20	철학/심리학/윤리학	슈퍼맨은 왜 미국으로 갔을까	부키(주)	한민		
21	철학/심리학/윤리학	스마트폰을 이기는 아이 : 스마트폰 없이도 잘 사는 아이로 키우는 7단계 주의력 훈련	마음친구	루시 조 벨리디노	Y	이재석
22	철학/심리학/윤리학	앙겔루스 노부스의 시선	에디투스	함상원		
23	철학/심리학/윤리학	이제부터 행복해지기로 합시다	시그마북스	정종진		
24	철학/심리학/윤리학	인간은 어떻게 서로를 공감하는가 : 거울뉴런과 뇌 공감력의 메커니즘	바다출판사	크리스티안 케이서스	Y	고은미, 김잔디
25	철학/심리학/윤리학	인공지능을 넘어서는 인간의 강점	주식회사 프리렉	나라 준	Y	김희은
26	철학/심리학/윤리학	장자, 고뇌하는 인간과 대면하다	빈번책방주식회사	정용선		
27	철학/심리학/윤리학	지식의 착각	세종서적(주)	스티븐 슬로먼, 필립 페르백	Y	문희경
28	철학/심리학/윤리학	지지지 않는 힘	폴리는책	이민규		
29	철학/심리학/윤리학	크레이빙 마인드	어크로스	저드슨 브루어	Y	안진이
30	철학/심리학/윤리학	탈출하라 : 돈, 노동, 소비, 관계... 우리를 묶어매는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는 법	커시오페아 출판사	로버트 링엄	Y	이주만
31	철학/심리학/윤리학	프리먼 다이스의 의도된 실수	(주)메디지미디어	프리먼 다이스	Y	김학영
32	종교	감정 구출	담앤북스	죽첸 뵐블 린보체	Y	이종복
33	종교	사찰 순례	(주)한경과조경	조보연		
34	종교	아빠는 함께 걷자 했고 우리는 산티아고로 갔다	가톨릭출판사	조병수		
35	종교	이야기를 해야 할지!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정진홍 외 36인		
36	종교	중동신화여행	주식회사 아시아	김현선 외 6인		
37	종교	참여와 명상, 그 하나됨을 위한 여정	도서출판 운주사, 너울북	이정배 외 7인		
38	종교	페미니즘과 기독교의 맥락들	뉴스앤조이	백소영		
39	종교	한 마리 벌레처럼, DMZ를 홀로 건다	꽃자리	한희철		

연번	분야	도서명	출판사	저자	번역서	번역자
40	종교	히잡은 패션이다 : 인도네시아 무슬림 여성의 미에 대한 생각과 실천	서해문집	김형준		
41	사회과학	3년 후 부의 흐름이 보이는 경제지표 정독법	한스미디어(주)	김영익		
42	사회과학	4차 산업혁명 멘토링	북캠퍼스	권순이 외 7인		
43	사회과학	4차 산업혁명 시대 내 자리는 안전한가	티움출판	유재경 외 7인		
44	사회과학	4차 산업혁명, 일과 경계를 바꾸다	삼성경제연구소	신동엽 외 6인		
45	사회과학	WHEN : 언제 할 것인가	주식회사 시공사	다니엘 핑크	Y	이경남
46	사회과학	가장 아름다운 나라 : 플라톤의 국가 - 사유와 비판	오렌지도서	정재각		
47	사회과학	경제 규칙 다시 쓰기	(주)열린책들	조지프 스티글리츠	Y	김홍식
48	사회과학	광주, 그날의 진실 : 다시 쓰는 5·18	(주)나남	김형석		
49	사회과학	교사는 아이들과 함께 성장한다 : 행복한 아이를 만드는 교실 속 아이들, 교실 밖 아이들 교육 처방전	행복한미래	정신아		
50	사회과학	굿 라이프	(주)북이십일	최인철		
51	사회과학	그들이 알려주지 않는 투자의 법칙	주식회사 위즈덤하우스 미디어그룹	영주 닐슨		
52	사회과학	나, 함께 산다 : 시설 밖으로 나온 장애인들의 이야기	도서출판 오일의봄	서종원		
53	사회과학	내 아이랑 뭐하고 놀지? : 한 뼘만큼 놀아 주면 한 뼘만큼 행복해요	(주)책지사	임미정		
54	사회과학	내레이션의 힘 : 말은 어떻게 예술이 되는가	주식회사 예문아카이드	박형욱, 김석환		
55	사회과학	내일도 무사히 출근했습니다	(주)황금부엉이	우정명		
56	사회과학	노포의 창사법	인물루엔셜	박찬일		
57	사회과학	다라야의 지하 비밀 도서관	도서출판 더숲	델핀 미누이	Y	임영신
58	사회과학	더 나은 논쟁을 할 권리	(주)휴머니스트출판그룹	김은실 외 8인		
59	사회과학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학교혁명 : 제3기 진보 교육감 시기의 학교정책	도서출판 실뮬터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심정보 외 13인)		
60	사회과학	돈이 보이는 빅데이터	김영사	이종석		
61	사회과학	딱 이만큼의 경제학	다운북스	강준형		
62	사회과학	라틴아메리카 명저 산책	(주)그린비출판사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63	사회과학	리질리언스 : 다시 일어서는 힘	교육과실천	전정호		
64	사회과학	민청학련	(주)메디지미디어	민청학련계승사업회		
65	사회과학	버려진 노동 : 유연해진 노동시장에서 전망 없이, 뼈 빠지게 일하기	도서출판 나농의집	권터 발라프	Y	이승희
66	사회과학	불편한 인권 : 사상으로 읽는 인권의 역사	도서출판 들녘	박홍규		
67	사회과학	사람 속에서 길을 찾다	산지니	박영미		
68	사회과학	사양합니다, 동네 바보 형이라는 말	(주)도서출판 푸른숲	류승연		
69	사회과학	사회독서, 세상을 읽는 힘(1-3)	(주)북하우스퍼블리셔스	임성미		
70	사회과학	새로운 엘리트의 탄생	㈜미래엔	임미진, 정선언, 최현주, 김도년, 하선영		
71	사회과학	서울 선언	(주)열린책들	김시덕		
72	사회과학	서울대 최종학 교수의 숫자로 경영하라(4)	원앤원북스	최종학		
73	사회과학	서울의 공간경제학 : 산업과 공간으로 본 서울의 경제	(주)나남	김범식 외 19인		
74	사회과학	세계의 리더들은 왜 직장을 던져버리는가	헬스조선	야마구치 슈	Y	이정환
75	사회과학	세월호 마지막 네 가족 : 1313일의 기다림	북콤마	이경태 외 5인		
76	사회과학	시간은 어떻게 돈이 되었는가?	(주)휴머니스트출판그룹	류동민		
77	사회과학	시민의 이야기에 답이 있다	주식회사 시그니처	존 개스틀, 피터 레빈	Y	장용창, 허광진
78	사회과학	신중국책략 : 세계 최고를 향한 중국의 야심과 한국의 전략	티움출판	황순택		
79	사회과학	심심할수록 똑똑해진다	㈜미래엔	마누시 조모로디	Y	김유미

연번	분야	도서명	출판사	저자	번역서	번역자
80	사회과학	아랍과 이슬람	도서출판 모시는사람들	임병필 외 5인		
81	사회과학	아마존 미래전략 2022	(주)인터파크	다나카 미치아키	Y	류두진
82	사회과학	아픈 사회를 넘어	(주)북이심일	조병희, 이재일, 구혜란, 유영순, 박상희, 양준용		
83	사회과학	인간혁명의 시대	가디언	윤석만		
84	사회과학	인도 인사이트	한국학술정보	손창호		
85	사회과학	인생에 승부를 걸 시간 : 돈은 당신을 기다려 주지 않는다!	유노북스	데이비드 오스본, 폴 모리스	Y	강성실
86	사회과학	일본의 이해	한국학술정보	김상규		
87	사회과학	자만의 뒷에 빠진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데이비드 런시먼	Y	박광호
88	사회과학	정치하는 엄마가 이긴다	(주)상상야가데미	정치하는엄마들		
89	사회과학	착한 엄마 콤플렉스	책들의정원	김지영		
90	사회과학	칼리의 프랑스 학교 이야기	생각정원	목수정		
91	사회과학	태도의 골격	(주)다산북스	로잔 토머스	Y	서유라
92	사회과학	통합 사회를 잡아라(1-2)	(주)사계절출판사	조지욱 외 8인		
93	사회과학	한 권으로 읽는 국부론	㈜박영사	애덤 스미스	Y	안재욱
94	사회과학	한 템포 늦게 말하기	(주)강단	조관일		
95	사회과학	활망은 희망	가르스연구소	정신지		
96	사회과학	혁신의 파 : 새로운을 가로막는 오래된 생각을 깨뜨리다	주식회사 청어람미디어	권오상		
97	사회과학	황금 수도꼭지	뽀엠퍼커스	윤정규		
98	순수과학	경이로운 생명	지오북(GEBOOK)	브라이언 쿡스, 앤드류 크엔	Y	양병찬
99	순수과학	과학이라는 헛소리 : 욕심이 만들어낸 괴물, 유사과학	MID 열아이디	박재용		
100	순수과학	나는 미생물과 산다 : 인류 기원부터 시작된 인간과 미생물의 아슬아슬 기막힌 동거	(주)을유문화사	김웅빈		
101	순수과학	달에서 봤어!	토토북	김성화, 권수진		
102	순수과학	먹이식물로 찾아보는 곤충도감	상상의숲	정부희		
103	순수과학	미세먼지 수사대	좋은꿈	양미진, 신혜순, 유영진		
104	순수과학	바다를 병들게 하는 플라스틱	스마트주니어	시르스티 불롱, 예이르 빌 가브리엘센	Y	한소영
105	순수과학	빛의 속도로 이해하는 상대성이론	도서출판 우리학교	이종필		
106	순수과학	사피엔스 DNA 역사	(주)살림출판사	애덤 러더퍼드	Y	한정훈
107	순수과학	수학과 그림 사이	공리출판	홍재영		
108	순수과학	요리에 숨은 화학 반응을 찾아라!	(주)자음과모음	김승태		
109	순수과학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숲속 생물 이야기	㈜미래엔	한영식		
110	순수과학	인공지능 머디붓을 이긴 장동어들	국립상태원	이금안 외 8인		
111	순수과학	전문대의 시간 전문학자의 하늘	에코리브르	전영범		
112	순수과학	크리스퍼가 온다 : 진화를 지배하는 놀라운 힘,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프시게의숲	제니퍼 다우드나, 새뮤얼 스티버그	Y	김보은
113	순수과학	화성 탐사	(주)한림출판사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편집부	Y	이동훈
114	기술과학	FPV 레이싱드론 바이블	성신미디어	권용상, 주식회사 성신미디어		
115	기술과학	고기를 먹지 않는다면?	도서출판 커다리	세라 엘턴	Y	천미나
116	기술과학	내성적 아이의 힘	(주)북이심일	이정화		
117	기술과학	노벨상으로 본 과학과 창의성	(주)북랩	최완섭, 이영미		
118	기술과학	대한민국 심대, 건강은 하십니까?	주식회사 꿈결	문주호, 박민수, 정동환		
119	기술과학	둘째는 다르다 : 형제자매, 재능과 개성을 살리고 갈등 없이 키우는 법	한빛미디어 (주)	김영준		

연번	분야	도서명	출판사	저자	번역서	번역자
120	기술과학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3D 프린팅	도서출판 다른	멜리사 코크	Y	정아영
121	기술과학	엄마의 공책	공리출판	이성희, 유경		
122	기술과학	오늘부터 우리 집에 식물이 살아요 : 미세먼지 없애주는 우리 집 반려식물	북스스	권지연		
123	기술과학	음식 탐험대의 별별 세계 음식 여행 : 지리, 역사, 문화를 골라!	찰리북	조 베티어, 조사프	Y	나운희
124	기술과학	의과학산책	조윤커뮤니케이션	임현균		
125	기술과학	저음임마 뎀퐁 탈출법 : 출산 전 100일부터 출산 후 100일까지 임신 출산 육아 고민해결서	소울하우스	김혜경, 박현주		
126	기술과학	청소년 농부 학교 : 나를 찾아 떠나는 텃밭 여행	주식회사 창비교육	김한수, 김경운, 정화진		
127	기술과학	최강 정경 히어로 비누맨	㈜미래엔	우에타니 부부	Y	전예민
128	기술과학	한이사들이 읽어주는 한의학	도서출판 맑은샘	김재명 외 9인		
129	예술	걱정 말고 그려 봐! : 낙서 예술가 존 버거맨과 함께하는, 신나고 재미있는 101번의 창작 수업!	윌컴퍼니 (WILLCOMPANY)	존 버거맨	Y	공민희
130	예술	건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들 : 김광현 교수의 건축 수업	드인돌출판(주)	김광현		
131	예술	낮선 경험	도서출판 선	전단칭	Y	강초아
132	예술	레플리카	(주)도서출판 푸른숲	박세진		
133	예술	세상을 놀라게 한 경매 작품 250	마로니에북스	크리스티	Y	이호숙
134	예술	신애침	주식회사 돌베개	강현		
135	예술	안톤 브루크너(4) : 빈에서의 마지막 생애(1888-1896)	도서출판 예술	현동혁		
136	예술	역자	모요사출판사	이지은		
137	예술	영화와 담화 : 이왕주 교수 정년 논문집	(사)부산대학교출판부	이왕주 외 7인		
138	예술	일상과 감각의 한국디자인 문화사	주식회사 글항아리	조현신		
139	예술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주식회사 위즈덤하우스 미디어그룹	이러하		
140	예술	죽은 자들의 도시를 위한 교향곡 : 쇼스타코비치와 레닌그라드 전투	주식회사 돌베개	M. T. 앤더슨	Y	장호연
141	예술	평양미술 조선화 너는 누구냐	서울셀렉션주식회사	문병강		
142	언어	공부도 인생도 국어에 답 있다	알투스	허철구		
143	언어	방언의 발견	(주)장비	정승철		
144	언어	지금 우리말글	진선출판사	손진호		
145	문학	검은 돌 숨비소리	견은사람	신경림 외 90인		
146	문학	겁쟁이 이상	우주나무	정하섭		
147	문학	귀환	주식회사 돌베개	허삼 마타르	Y	김병순
148	문학	나답게 살다 나답게 죽고 싶다	(주)북이심일	허시다 스가코	Y	김정환
149	문학	나의 아로니아공화국	(주)다산북스	김대현		
150	문학	남편은 내가 집에서 논다고 말했다	주식회사 도서출판마음의숲	최유아		
151	문학	내 정원의 로봇	도서출판열린책	데보라 인스틀	Y	김석희
152	문학	내가 만드는 1000가지 이야기	국민서관	막스 튀코스	Y	이주희
153	문학	너는 검정	(주)장비	김성희		
154	문학	네 번째 책상 서랍 속의 타자기와 회전목마에 관하여	푸른커뮤니케이션	김윤하		
155	문학	녹두꽃 바람 불 적에	씨연륙	최유정		
156	문학	누군가의 시 한 편 : 시는 오래도록 팔려있는 것발이다	달아실	최승호		
157	문학	뉴 보이	현대문학	트레이시 슈발리에	Y	박현주
158	문학	댄스, 푸른푸른	주식회사 창비교육	김신우		
159	문학	돌아온 여행자에게	한빛비즈	린바이티	Y	이현아

연번	분야	도서명	출판사	저자	번역서	번역자
160	문학	딤뉴스	(주)새물출판사	안형준		
161	문학	뜻밖의 좋은 일 : 책에서 배우는 삶의 기술	(주)장비	정혜윤		
162	문학	라이브 : 대본집 & 메이킹북(1-2)	(주)북로그컴퍼니	노희경		
163	문학	로봇 중독	별숲	김소연, 임어진, 정명섭		
164	문학	문학이 미래다	소명출판	김육동		
165	문학	물류창고	(주)문학과지성사	이수영		
166	문학	민기 어렵겠지만, 엘비스 의상실	(주)사계절출판사	최향량		
167	문학	발버둥치다	(주)자음과모음	박하령		
168	문학	봄날의 꿈	(주)문학동네	송미경		
169	문학	사랑 항목을 참조하라	(주)웅진씽크빅	다비드 그로스만	Y	황기환
170	문학	사랑의 빛깔들 : 프랑스 문학이 기억해낸 러브, 스토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이지순		
171	문학	사소한 준비	디자인곰/아작	앤 레키	Y	신혜경
172	문학	생사창	도서출판 연극과인간	사요홍, 티앤진신	Y	오수경
173	문학	숨바꼭질	(주)사계절출판사	김정선		
174	문학	슈퍼 히어로의 통 닦는 법	㈜책읽는곰	안영은		
175	문학	쌍둥이 할아버지의 노래	도서출판 b	김준태		
176	문학	아리랑 : 영자 예이코 제인의	지식과감성#	백훈		
177	문학	아빠와 토요일	(주)한림출판사	최해진		
178	문학	어느 난민 가족의 여행 징검다리	씨에스엠엔이	마그리트 루어스	Y	이상희
179	문학	엄마의 꽃시	뽀뽀퍼커스	김용택 외 100인		
180	문학	엑시트	(주)비룡소	황선미		
181	문학	여기가 상해 임시 정부입니다	(주)풀과바람	장성자		
182	문학	영의 기원	현대문학	전희란		
183	문학	유쾌한 회전목마의 사랑	중앙일보플러스 주식회사	박성현		
184	문학	잃어버린 잠을 찾아서	(주)현암사	마이를 맥거	Y	임현경
185	문학	저는 아직 서울이 괜찮습니다	주식회사 웨일북	이상빈		
186	문학	점동아, 어디 가니?	(주)씨드북	길상효		
187	문학	지평선 : 김시종 시집	소명출판	김시종	Y	곽형덕
188	문학	첫사랑(무선)	도서출판웅진씨씨	브라네 모제티지	Y	박지니
189	문학	커밍아웃 스토리	도서출판 한티재	성소수자부모모임		
190	문학	태엽 아이	(주)꿈꾸는고리연	유명금		
191	문학	통행금지	서해문집	박상률		
192	문학	파리발 서울행 특급열차 : 기자 덕후 오기사의 국제선 열차 탑승기	(주)상상스쿨	오영욱		
193	문학	편협의 완성	(주)문학과지성사	이갑수		
194	문학	하지만...	씨에스엠엔이	안느 방탈	Y	이정주
195	문학	해자네 점집	걷는사람	김해자		
196	문학	햇빛 어른거리는 길 위의 코끼리	알마출판사	우영이	Y	허유영
197	문학	형이 다 큰 날	리젬	강이경		
198	문학	호랑이 남자	도서출판 오일의봄	예가 쿠르니아완	Y	박소현
199	문학	황현산의 사소한 부탁	주식회사 난다	황현산		

연번	분야	도서명	출판사	저자	번역서	번역자
200	역사/지리/관광	가족과 함께하는 첫 번째 이순신여행	수경출판사	장정호		
201	역사/지리/관광	개와 늑대들의 정치학	정림출판(주)	함규진		
202	역사/지리/관광	경복궁의 상징과 문양	시간의물레	황인혁		
203	역사/지리/관광	끌러가다, 버려지다, 우리 앞에 서다(1-2)	도서출판 푸른역사	서울대 인권센터 정진성 연구팀(정진성 외 7		
204	역사/지리/관광	나의 첫 세계사 여행 : 중국·일본	휴먼어린이	전국역사교사모임		
205	역사/지리/관광	낮선 여행, 떠날 자유	꿈의지도	제삼열, 윤현희		
206	역사/지리/관광	내 아이의 배낭여행	꿈의지도	김현주		
207	역사/지리/관광	문명과 식량 : 인류는 자연환경의 위기에 맞서 어떻게 번성하는가	(주)놀와	루스 디프리스	Y	정서진
208	역사/지리/관광	박종진 선생님과 함께 하는 두근두근 개성 답사	(주)도서출판 청년사	박종진		
209	역사/지리/관광	백년을 그리다	한겨레출판 주식회사	윤범모		
210	역사/지리/관광	병서, 조선을 말하다	인물과사상	최형국		
211	역사/지리/관광	불평등의 이유 : 부와 권력이 집중되는 10가지 원리	이데아	노엄 촘스키	Y	유강은
212	역사/지리/관광	빈민성으로 가는 길	책세상	전진성		
213	역사/지리/관광	서서울에 가면 우리는	프시케의숲	한중수, 김미경		
214	역사/지리/관광	아빠, 이런 여행 어때? : 내 아이와 여행하는 22가지 방법	씽크스마트	김동욱		
215	역사/지리/관광	요동 고구려 산성을 가다 : 73개 고구려 산성 현장답사	도서출판 통나무	원종선		
216	역사/지리/관광	이슬람 제국	경인문화사	류광철		
217	역사/지리/관광	이임하의 여성사 특강	철수와영희	이임하		
218	역사/지리/관광	조선의 귀여 : 근대의 틈새에 숨은 변태들의 초상	현실문화연구	박차민정		
219	역사/지리/관광	초상화, 그려진 선비정신	(주)놀와	이성낙		
220	역사/지리/관광	코르셋과 고래뼈	도서출판 들녘	이민정		